

大河기획/한라산 학술대탐사(174회)

제2부 한라대맥을 찾아서-(8)동거문오름

입력 : 2003. 11.28. 00:00:00



제주는 오름의 왕국이다. 섬 어디를 가나 오름이 없는 곳이 없으며 저마다 독특한 매무새가 이토록 고울 수가 없다. 오름이 간직한 이야기가 제각각이며 제주섬 사람들의 삶의 향기가 진하게 베어난다. 11월 1일 탐사단은 동거문오름에 올랐다. 이어 15일에는 동거문오름 자락에 있는 하도 공동목장을 찾았다. 탐사 식구도 갈수록 늘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조사팀이 줄곧 동행하고 있으며 전문가그룹과 오름 동호인들이 참여해 열

기가 뜨겁다. 8일에는 제주교대생 10여명도 함께 했다.

■자연이 빛은 피라미드에 감탄

탐사단이 대맥을 거슬러 올라오며 학수고대 해왔던 오름이 바로 동거문오름이다. 그 형체가 마치 희대의 불가사의로 불리는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닮았다. 마침 날씨도 쾌청이어서 오름답사에 안성맞춤이다. 이렇게 좋은 날에 아름다운 오름을 오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이 곳을 동거문오름이라 부르는 연유는 조천 선흘리에 있는 거문오름을 서거문오름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해가 쉽다.

여느 오름과는 너무도 다른 모양이 이 오름을 아직 답사한 경험이 없는 이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구좌읍공동묘지 쪽으로 진입해 비포장 농로와 시멘트길을 가노라면 문석이 오름 사이로 동거문오름으로 향하는 길목이 나타난다. 길목에는 임시 사다리가 놓여 있다. 오름 답사객들을 위한 배려라 생각하니 절로 고맙기까지 하다.

오름에 당도하면 꽃향유와 물매화, 숙부쟁이가 반긴다. 잔디 양탄자 위를 늦가을 꽃들이 형형색색 수를 놓고 있는 듯하다. 가파른 칼날 능선을 따라 오름 꼭대기에 이르렀다. 멀리 우도봉과 일출봉, 섭지코지가 선명하고 한라산 자락에 늘어선 오름군도 한눈에 들어온다.

오문필위원이 탐사단을 불러 모아 오름 하나하나 가리키며 그 이름을 말해주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리곤 한다. 직접 오르지 않고서는 기억력마저 쇠퇴해버리게 만드는가 보다. 오름이 더욱 그렇다.

오름을 정기적으로 오르는 마니아들 중에는 제주의 수많은 오름들 중에서 제일은 동거문오름이라고 단정지어 말하기도 한다. 그만큼 여느 오름에 비해 생김새가 독특하다. 사면이 둥그렇고 층으로 언덕이 지고 남서로 향한 말굽형 굴부리다. 그 모양새가 마치 거미집과 같다고 하여 '거미오름'으로 불리는 까닭도 이 때문이다.

오름 위에는 4개의 봉우리가 연이어 있고 그 안에 세개의 굴부리가 각기 다른 모양을 띠고 있다. 제일 깊은 굴부리 안으로 강영제 위원이 홀로 들어갔다. 굴부리안의 식생을 훑어보아야 직성이 풀리기 때문이다. 봉우리 위에서 보니 강 위원의 모습이 까마득할 정도로 굴부리 깊이는 수십미터에 이른다.

오름 능선과 자락은 온통 묘지다. 심지어 분화구안에도 묘 자리를 썼다. 동거문오름은 망자들에게도 역시 영원한 휴식처가 되고 있는 것이다./특별취재팀

[포커스/하도공동목장]광활한 초원·따스한 기후 '목축의 적지'

구좌지역은 고대로부터 목축의 적지로 알려져 왔다. 농지는 협소한 반면 목장용지는 많은 편이어서 고려때부터 목축업이 발달했다. 중산간의 광활한 초원과 생육에 알맞은 기후조건은 풍족한 목초를 가축에게 공급할 수 있어 우마의 방목을 가능케 했다.

동거문오름에 오르면 그 자락에 소떼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서북쪽에 높은오름과 아부오름 자락에는 건영목장이, 동쪽 손자봉 사이에는 하도공동목장이 있다.

11월 8일 오전 10시쯤 하도목장을 찾았다. 3백여마리나 되는 소떼가 중산간 초지대에서 풀을 뜯고 있는 광경은 그리 흔한 모습이 아니다. 목장에는 60~70대 '소떼우리' 노인들이 마치 장수가 휘하 군졸들을 지휘하듯 일사분란하게 소떼를 몰고 다닌다. 소떼우리들의 후리는 소리에 맞춰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소떼의 모습이 신기할 정도다.

이곳에서 5년째 목장을 관리하고 있다는 부두경 목감(70)은 이 곳에도 초지를 찾아 주변 동거문오름과 손자봉, 높은오름까지 소들을 풀어놓는다고 했다.

부씨는 "하도지역 뿐만 아니라 와흘, 와산, 월정, 한동에서까지 이곳에 방목을 맡긴다"며 4월 15일부터 겨울에 접어드는 11월 15일까지 7개월간 이곳에서 방목한다고 들려주었다.

[전문가 리포트]겨울오름 산행 추위극복이 최우선

제주의 오름은 계절에 따라 심지어 시간에 따라서도 그 모습이 천태만상이다. 봄날에는 솜방망이가 오름 자락을 노랑게 물들이는가 하면, 여름에는 싱그러운 신록을 선사한다. 가을오름은 하얀 억새꽃 물결이 일렁이고 한켠에는 꽃향유로 능선을 자줏빛으로 물들이게 한다. 이렇듯 온갖 자태를 뽐내다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오름은 겨울을 맞이한다.

세찬 눈보라와 함께 끽끔 얼어붙은 오름에서도 그 모진 생명력을 느낄 수 있다. 한라산록에서 생활하다 오름을 찾은 노루 가족들의 겨울나기, 눈속을 헤치고 노란 꽃망울을 터뜨리는 복수초의 모습이 그렇다.

요즈음 오름지기들은 오름의 다양한 모습을 느끼기 위해 계절과 시간을 따지지 않는다. 그러나 겨울오름은 녹록치 않다. 오름지기가 오름을 찾는 것은 여유를 이용하여 몸과 마음을 단련하여 인격함양을 위함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철저한 준비를 필요로 한다.

겨울오름 산행에서는 무엇보다도 추위에 대한 극복이 최우선이다. 우선 인체에서 체온 손실이 가장 심한 부분은 머리이다. 그래서 방한모가 필요하다. 기왕이면 귀까지 덮을 수 있는 것으로, 그리고 바람을 막아주는 상·하의는 기본이다. 겨울오름에서는 버너같은 화기를 절대 이용할 수 없다. 사실상 겨울부터 봄에 새싹이 돋아나는 기간까지는 산불예방을 위하여 오름출입이 통제되는 기간이다. 그래서 보온병이 필요하다. 산행 중 추위를 느낄 때 마다 따뜻한 물이나 차를 마셔주면 체온을 유지시켜 준다.

그리고 진눈깨비나 세찬 바람은 보행에 지장을 주어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팡이가 필수적이다. 특히 젊은이들은 지팡이를 이용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두 발로 걷는 것 보다는 세 발로, 또는 네 발로 걷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예비 장갑과 양말을 준비하여 동상에 대비하는 것도 겨울산행의 지혜임을 잊지 말자.

등산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또는 그 이상의 상황들을 극복하면서 목적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준비와 과정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요구한다. 그래서 등산은 스스로의 구도행위라고 한다.

/오문필 탐사위원(맥킨리 원정대장/산악분야)

[전문가 리포트]변화무쌍한 동거문악 힘찬 기상의 높은오름

동거문오름은 둔지악과 더불어 특히 동쪽의 빼어난 음택지의 하나로, 서기(瑞氣)를 품은 망자들의 쉼터로 지세가 자못 빼어난 곳이다. 동거문오름은 역(易)에서 말하는 구궁(九宮)의 변화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하늘에서 빠친 기운을 살짝 가두어 땅의 기운과 은밀히 합치시키는 그러한 곳이다. 빼어난 산의 몸체는 기슭에 가지들 틀어 곳곳에 혈처를 내고, 흘러온 내룡(來龍)은 기슭에 잔잔한 줄기를 형성하여 득수처(得水處)를 이루어 명혈(明穴)을 이루는 좋은 조건을 형성한다.

예나 지금이나 명당(明堂)은 모두가 선호하는 곳이다. 그 명당이라는 것은 산천의 정기를 고루 받는 곳을 말하는 것이다. 그 동쪽의 지맥을 이어주는 오름들은 각기 특별한 성정을 품고 있지만, 동쪽의 오름들 중에 특히 심오한 역(易)의 이치를 담고 있는 동거문오름은 풍수학적으로 중

요한 오름중의 하나이다. 변화가 무쌍한 동거문오름은 천지의 변화를 읽고 지리의 성정을 꿰뚫는 개안(開眼)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시이불견(視而不見), 청이불문(聽而不聞)' 즉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음'으로 명혈은 서려 있으나 참으로 얻기가 어려운 곳이다.

높은오름은 동남쪽으로 머리를 틀어 용기하면서 힘차게 밀고 내려오면서 중간 하부에서 다시 한번 돌출하면서 좌우로 분기(分岐)하여 동남과 서남쪽으로 기운을 뺏히며 손자봉, 동거문이 일대와 문석이오름 일대로 내려가고, 서북쪽으로 꼬리를 내리면서 아부오름과 송당 일대로 힘차게 굽이쳐 내려간다.

높은오름의 정상에서 사방을 보면 크고 작은 오름들이 확연하게 들어와 최고의 장관을 이룬다. 멀리서 가까이서 가까이서 멀리서 천군만마가 달려오듯 한다. 높은오름의 서북사면의 아래는 새가 나무를 쪼는 형상으로 대대로 첨귀(淸貴)한 기운을 모으는 땅이요, 높은오름 아래 서남(未坤)을 의지하고 동북(東北)을 향하면 평지에 연꽃이 핀 형상이 된다.

송당 일대는 높은오름의 지맥을 타고 내려간 곳으로 평지를 이룬 부분에 명혈을 안고 있다. 바야흐로 높은오름의 정기를 타고 떠오르는 이 일대는 힘찬 고동의 소리를 내며 21세기의 의미 있는 얼굴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신영대 탐사위원(제주관광대 교수/풍수분야)

[알림]탐사 동행 희망자 신청을 받습니다

한라산 탐사는 각 분야의 전문가와 취재팀으로 구성, 매주 토요일에 실시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탐사를 위하여 희망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1월 29일(토)은 민오름, 비치미오름을 탐사합니다. 민오름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별장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탐사 참가비 1만원, 탐사문의 기획특집부(750-2280)탐사 동행 희망자 신청을 받습니다

[사진설명]동거문오름 북동사면 아래 위치한 하도목장 풍광은 소떼들과 어울려 평화스런 풍요로움을 안겨준다./사진=강경민기자 gmkang@hallailbo.co.kr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